

방화의 양상

송 재 철 <화재원인조사전문가>

경신병자에 의한 방화양상을 어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의식이 혼탁한 상태에서의 히스테리 또는 지랄에 가까운 행위.

둘째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발작적으로 방화하는 행위.

셋째는 변질자(이상성격자)나 신경쇠약자같은 사람이 병적인 강박관념에 괴로워하다가 그 대항의식으로 방화하는 행위.

넷째로는 망각환상(예컨대 환시, 환청, 환촉)에 빠져서 방화하는 행위 같은 것 등이다.

이들중 실제로 자주 나타나는 것은 발작적방화나 강박관념에 의한 방화 같은 것들이다.

부인이 살림은 팽개쳐 놓은 채 밖으로만 나도는데 격분하여 자기집에 방화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이웃집에서 들리는 라디오·TV의 시끄러운 소리를 고통스럽게 느껴 그 집에 방화하는 예같은 것이 있다.

네번째 요인으로 인한 방화 행위는 이른바 명령환각에 의한 것이 많다. 즉 어디 어디에 불을 지르라는 신의 계시에 의해 행동한다는 유형인 것이다.

이상의 정신병외에도 정신박약(또는 저능), 이상성격(정신병질) 등도 가끔 문제시되고 있다. 지능이 극히 낮은 정신박약자에 의해 방화가 자주 저질러진다고 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전문학자간에 의견이 일치한

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행위후의 가공할 결과에 대해 판단할 능력에 결함이 있고 자기의 순간적인 착상에 대해 억제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기 또한 어린아이같은 욕구에 의한 것이 많다.

예컨대 소방차의 출동을 보기위해 방화한다든지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막상 훔칠 물건이 없자 화김에 불을 질렀다든지 하는 단순하고도 바보스럽거나 치기스런 동기의 것이

의외로 많다. 또 이상성격의 소유자가 방화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류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방화범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임상적 견해를 긍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한편, 방화의 내인관계로서는 성별과 연령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여성의 범죄에서 방화나 소매치기 같은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은 여성과 같이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자로서는



범죄의 수단이 용이할 뿐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는 것과 여성으로서의 생활환경으로부터 과생되는 여러 가지의 감정변화(원한, 분노, 치정 등)가 복수 등과 결의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범행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것이 근본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성욕문제에 있어서도 여러가지로 논하고 있으나 주로 여성의 경우 방화의 동기로서는 직·간접적으로 성욕이 적지않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교에 얽힌 방화, 생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방화가 실제로 발생함으로써 방화와 성욕의 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으나 이것이 과연 방화에만 국한지어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역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변태성욕자행위라고 몰아 붙이고는 있으나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자위행위나 성행위를 하게 되면 쾌감이 증대되기 때문에 방화했다는 사례도 있다.

또 연령문제에 있어서도 방화범엔 연소자가 많음이 관심을 끌고 있으나 다른 범죄에 비해 상상외로 그 폭이 넓어 고령자에도 적지는 않다.

이와같이 방화범이 각 연령층에 고루 있다는 것은 그 범행자체가 용이하다는 것으로 일단은 긍정이 가지만 연소자에게 특히 편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연소자가,

- 내부 심리적 압박이 강하고,

- 정신이 불안정해 강한 자기 본능이 높으며

- 연소자의 세포가 특히 다혈성 기질이 강하여 방화를 함으로써 쾌감을 느끼기 쉽다는 등으로 논술하고 있다.

여하간 연소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면이 많고 방화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러한 스트레스를 발산코자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점이고, 사려분별의 박약이 범행에 미치는 예도 적지 않음을 빼 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불장난(농화)이 이 범주가 될 것이다.

방화의 동기에는 형무소에 가기 위해서 방화를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에서 야기된 원한이나 분노에 의한 것도 많다. 그중 친족이나 근친간에 일어나는 것과 고용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많다.

특히 농촌의 경우 이같은 유형의 갈등이 많아 범행도 많은 편이다.

사소한 이유로 방화하는 경우를 그 지방의 풍토나 기후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같은 감정적 방화자들은 대부분 내향적 성격자로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한 다든지 극해하는 등

신경질적인 경향도 엿볼 수 있어 어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격자들을 방화범형이라고 분류하는 이가 있다.

원인을 사례로 보면 각양각색이나 외국의 경우 무능에서 태어나 음식받이로 자란 자가 가세가 기울어져 자신이 주위 사람들로 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믿고 5년동안 계획적으로 8차례나 동네에 방화하여 부락 전체가 스스로, 또는 대외적으로 저주받은 방화부락이라는 낙인이 찍혀 극도의 불안에 빠졌으며 생산은 물론 학생들의 성적저하까지도 초래하였고 적령기 남녀의 혼사마저 끊겼던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난 일이 있었다.

또 18세된 어느 빵집 배달원이 배달을 갔다가 개에게 위협을 당했던 일과 이로 인해 빵을 도둑맞았던 일들이 가끔 상기되어 밤중에 발작적으로 오토바이로 시내를 누비며 아무 곳이나 닥치는 대로 방화한 것이 17건이나 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연속방화는 처음엔 명백한 동기가 있어 방화를 했으나 점차 세상사람들이 떠들석하는 것에 더욱 흥미를 느껴 일종의 병적 반복행동으로 방화했다는 것이 검거후 범인의 진술에서 밝혀졌다. (●)

방화는 대개 대인관계가 수월치 못한 데서 야기되는 갈등이 원한과 분노에까지 이르러 야기되는 수가 많다.